

배포일시	2010. 6. 25.(금) 11:00 (총 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전화번호	051-718-0423

7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 7월의 기상특성

- 7월에는 중순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며,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 시켜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함.
-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 폭염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열대야 현상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남.
- 평년 7월에 태풍은 4.1개가 생겨 그 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7월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집중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함. 최근 5년간 7월의 일 강수는 2009년 7월 7일 부산에서 310mm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9년 7월 16일 마산 102mm, 부산 90mm를 기록했음. 이 때 부산은 사망 2, 부상 1, 이재민 1,166, 268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폭염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현상이 빈발하며,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현상도 자주 출현함. 최근 5년간 7월에 33℃도 이상의 폭염은 합천이 42회, 밀양이 40회로 가장 많았고, 35℃ 이상의 폭염은 합천 15회, 밀양 11회, 진주 9회 나타났음. 열대야는 거제가 23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해안지방에서 많이 나타났음. 폭염이 예상될 시 낮 동안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함. 또한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 필요.

○ 태풍

7월에 평균 4.1개가 생겨나고, 그 중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7월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1987년 7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지나간 “셀마”로 사망 345명, 5,96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2006년 7월 10일 “에위니아” 태풍으로 1조 8,344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태풍 접근시 호우뿐만 아니라 해안지방은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울산을 비롯한 경남해안의 도시들은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첨부 : 7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첨부]

7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6월 25일 11시 발표

□ 7월의 기상특성

- 7월에는 상순과 중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며,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 시키면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함. 최근에는 이러한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경향임.

※ 7월 강수일수 평년값(1971~2000)

지점	부산	울산	마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일수	13.0	12.5	13.3	13.7	13.4	13.9	13.0	12.8	13.8	14.1	12.8

-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 폭염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열대야 현상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남.
- 평년 7월에 태풍은 4.1개가 생겨 그 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장마 평년값(1971~2000)

지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강수량(mm)
남부지방	6.22~23	7.22~23	32	199~443(평균 330.9)
2009년 (부산·울산·경남)	6.21	8.3	44	543~1,078(평균 793.6)

□ 7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집중호우

최근의 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기록함. 최근 5년간 7월의 일 강수는 2009년 7월 7일 부산에서 310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9년 7월 16일 마산 102mm, 부산 90mm를 기록했음. 7월 16일 집중호우 시 부산 산복도로의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산사태 등으로 사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큰 피해가 있었음(사망 2, 부상 1, 이재민 1,166, 재산피해 268억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등 취약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폭염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현상이 빈발하며,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자주 출현함. 최근 5년간 7월에 33℃도 이상의 폭염은 합천이 42회, 밀양이 40회로 가장 많았고, 35℃ 이상의 폭염은 합천 15회, 밀양 11회, 진주 9회 나타났음.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은 2005년 7월 21일과 22일 거창과 합천에서 37℃를 기록함. 33℃ 이상의 폭염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합천지방에서 나타났음.

지점	시작일	종료일	지속일수
합천	2006.07.28	2006.08.17	21
진주	2006.07.29	2006.08.17	20
밀양	2006.07.29	2006.08.17	20
산청	2006.07.29	2006.08.17	20
울산	2006.07.28	2006.08.15	19
거창	2006.07.30	2006.08.17	19

지난 5년간 열대야일수는 거제가 23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거창, 산청 등 내륙보다는 부산, 울산, 마산, 통영, 남해 등 해안지방에서 많이 나타났음.

지점	부산	울산	마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일수	16	21	14	14	19	1	9	12	3	23	14

폭염이 예상될 시 낮 동안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양계장, 축사, 돈사 등에서는 가축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필요.

○ 태풍

평년 7월에 4.1개가 생겨나고, 그 중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작년 7월에는 2개의 태풍이 생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음. 7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1987년 7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지나간 태풍 “셀마”로 사망 345명, 재산피해 5,96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2006년 7월 10일 “에위니아” 태풍으로 1조 8,344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태풍 접근 시 호우뿐만 아니라 해안지방은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울산을 비롯한 경남해안의 도시들은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붙임 : 7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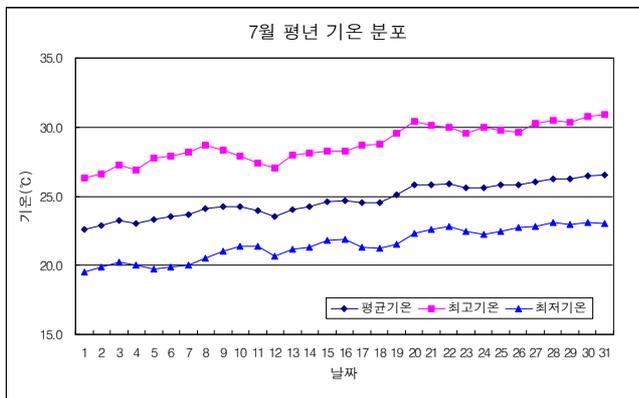
7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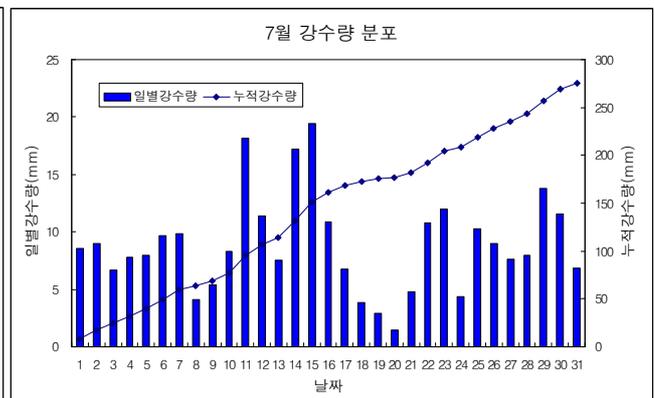
1. 7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부산	울산	마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24.2	25.0	25.3	24.2	25.1	23.9	25.0	25.2	24.6	24.5	24.8
최고기온	27.3	28.9	28.8	27.5	29.2	29.0	29.6	29.8	29.6	28.0	28.8
최저기온	21.9	21.7	22.6	21.9	21.7	19.9	21.2	21.4	20.9	21.7	21.9
강 수 량	258.8	195.3	293.7	261.4	291.0	273.8	258.8	241.9	291.8	344.7	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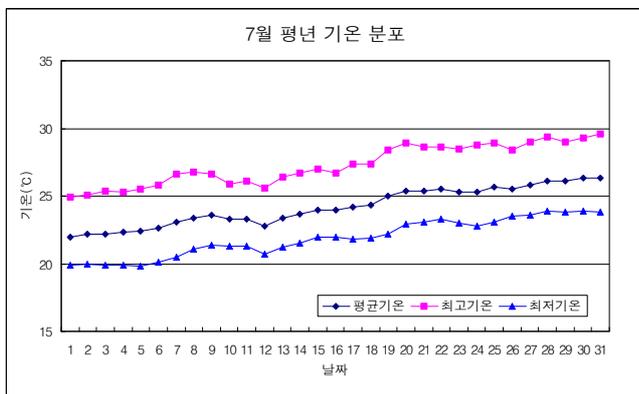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7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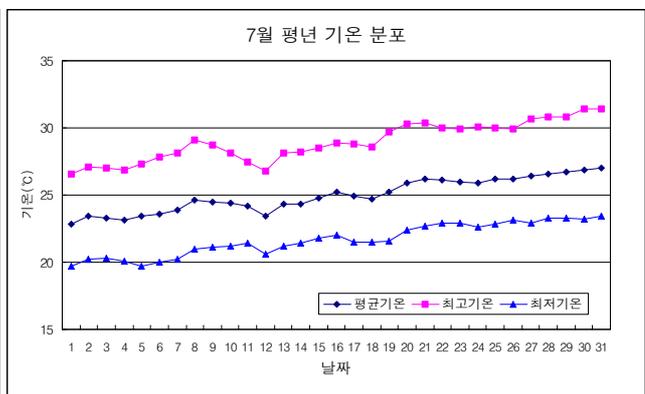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7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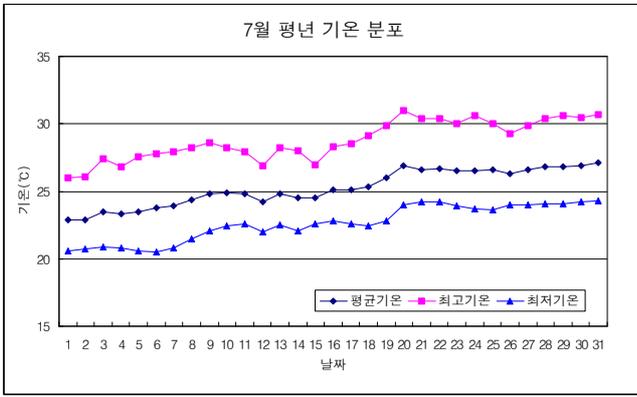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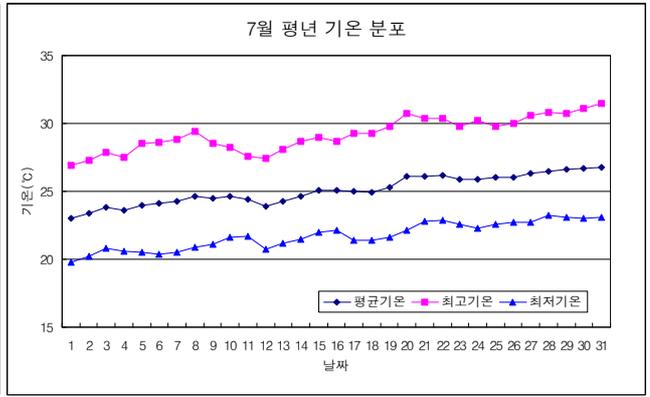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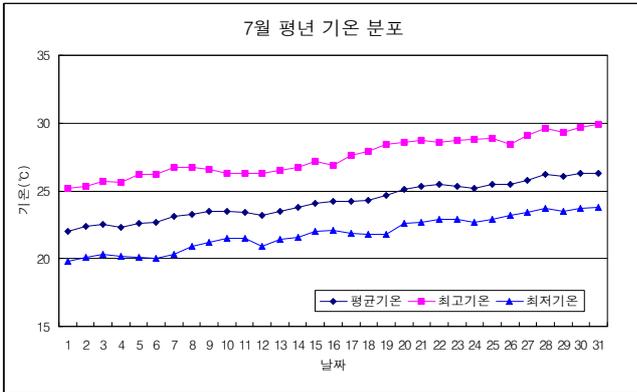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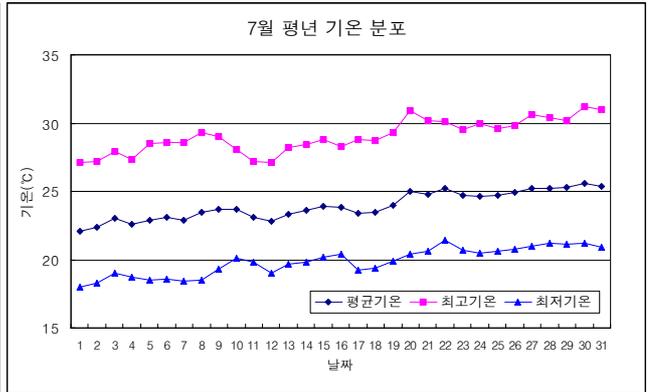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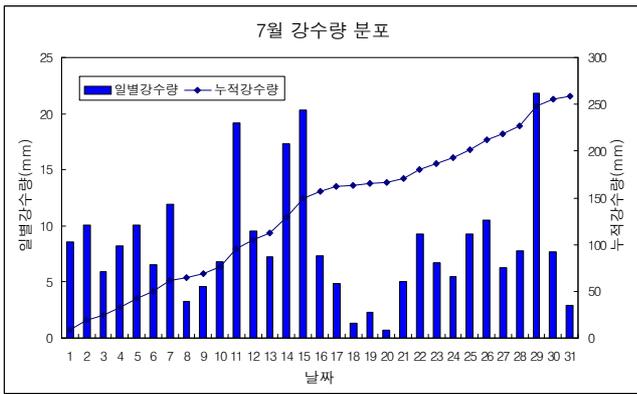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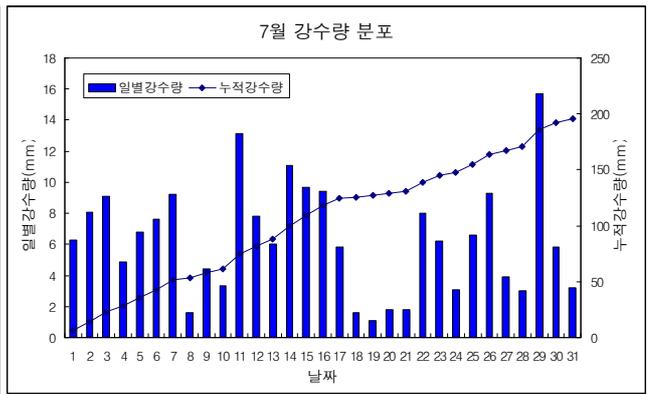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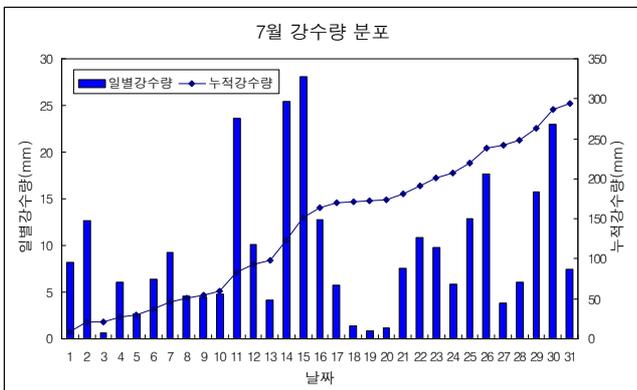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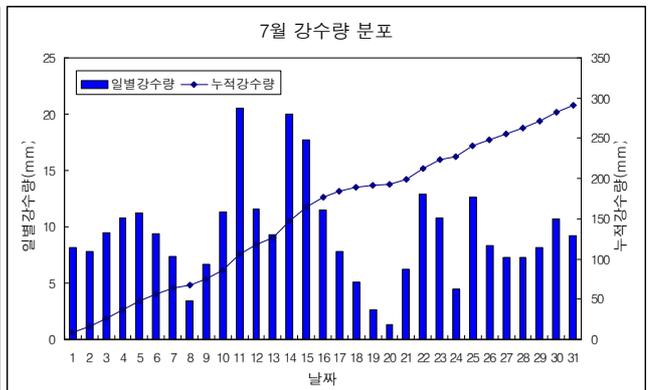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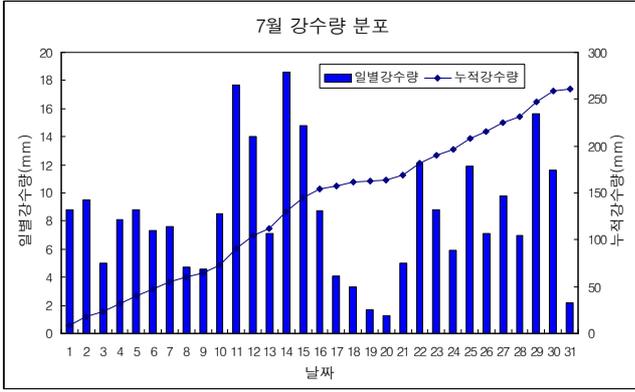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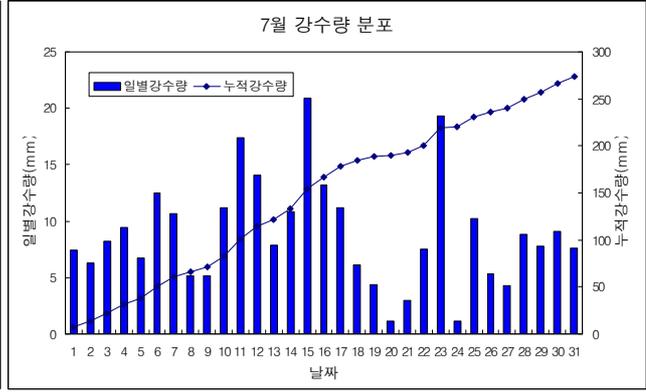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23.5	22.7	23.7	23.8	24.0	22.8	23.0
중순	24.5	24.0	24.7	25.1	24.9	24.1	23.6
하순	26.0	25.7	26.4	26.7	26.3	25.7	25.0
전체	24.7	24.2	25.0	25.3	25.1	24.2	23.9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20.2	20.4	20.4	21.1	20.7	20.5	18.7
중순	21.4	21.7	21.6	22.6	21.6	21.8	19.8
하순	22.8	23.4	23.0	24.0	22.8	23.2	20.9
전체	22.0	21.9	21.7	22.6	21.7	21.9	19.9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27.6	25.8	27.7	27.5	28.2	26.0	28.2
중순	28.4	27.1	28.5	28.5	28.8	27.2	28.6
하순	30.2	28.9	30.5	30.3	30.5	29.1	30.2
전체	29.0	27.3	28.9	28.8	29.2	27.5	29.0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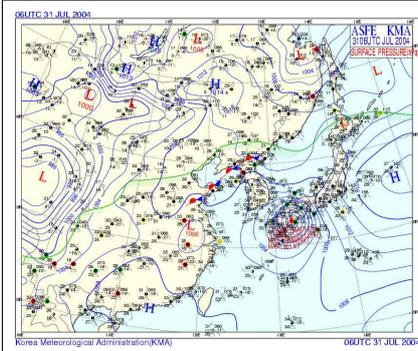
단위 : mm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통 영	거창
상순	79.0	76.1	61.3	60.1	85.7	73.0	82.8
중순	98.1	90.0	67.2	113.2	107.3	91.2	107.1
하순	96.8	92.8	66.8	120.4	97.9	97.2	83.9
전체	274.0	258.8	195.3	293.7	291.0	261.4	2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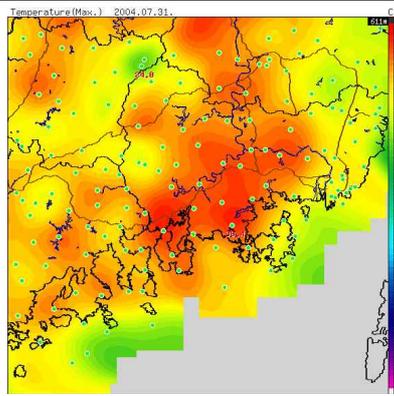
(평년기간 : 1971 ~ 2000년)

○ 폭염(2004년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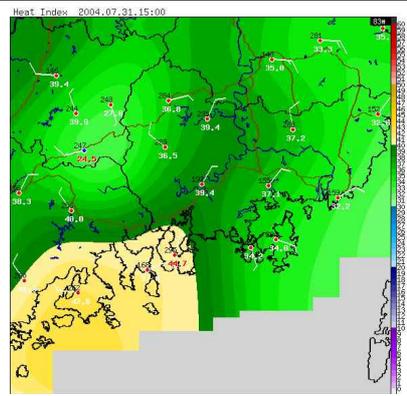
2004년 7월 31일 제10호 태풍 “남태우른”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고온다습하였음.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 열지수 32~45℃ 를 기록하는 폭염 현상을 나타내었음. 이 폭염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계속되었음.



2004. 7. 31. 15:00 지상일기도



2004. 7. 31. 낮 최고기온



2004. 7. 31. 15:00 열지수

○ 7월 지점별 최고기온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마산	1994.07.20	39.0	1994.07.24	38.4	1994.07.21	38.4	2004.07.23	37.0	2004.07.31	36.9
통영	1994.07.23	36.9	1994.07.24	36.8	1994.07.25	36.6	2004.07.31	36.3	1972.07.23	35.0
밀양	1994.07.20	39.4	1994.07.21	39.2	1994.07.18	39.1	1994.07.19	38.8	2004.07.30	38.5
남해	1994.07.20	37.8	2004.07.31	37.2	1994.07.21	37.1	1994.07.19	37.0	1990.07.29	36.6

○ 7월 폭염 재해 관련 기사



1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대원사계곡 하류의 괴물정 유원지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 즐기고 있다. /산청 /이원재기자

경남도내 40만명 피서 절정

무더위속 주말·휴일 4명 의사

8월 첫째 휴일인 1일 경남도내 해수욕장과 계곡에 40여만명의 인파가 물러들어 피서를 즐겼다. 특히 이날 태풍 '남태우른'이 남부 지방을 비껴가면서 예상됐던 비가 쏟아지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돼 피서행렬이 이어졌으며, 31일과 1일 이틀간 4명이 익사하는 등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다. 1일 경남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동태해수욕장과 구조라해수욕장, 남해 상주·송정해수욕장 등 도

내 유명 해수욕장에 20여만명의 인파가 몰렸고, 지리산 덕유산 등 산자락과 밀양 일출골 등 계곡에도 20여만명이 피서를 즐겼다. 이날 오후 부산과 마산·창원 등지의 시민들이 피서길에 나서면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경원1터널-좁안IC(13km) 구간에서 차량들이 밤늦게까지 거북순행을 계속했고, 남강-문산휴게소 등에는 물러드는 차량으로 북적였다. 1일 오후

5시40분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유원마을을 냇가에서 박모(60)군이 어룡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길이 1m 동덩이여 빠져 숨졌고, 오전 11시30분 산청군 금서면 매촌마을 대장교 아래 200m 지점에서 신모(24·무직·대구시 서구 비산동)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어왔서 지난날 31일 오후 1시41분경 밀양시 삼동면 대화리 풍광천에서 송모(57·부산시)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2m 깊이의 강물에 빠져 숨졌고, 같은날 새벽 1시5분경 산청군 신안면 시래마을 앞 양천강에서 낚시하던 이모(44·경북 경주시)씨가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창원 /박동필기자 dppark@kookje.co.kr

2004. 8. 2. 국제신문기사

어제 부산 불쾌지수 81... 울들어 최고

식중독지수도 위험수위

28일 부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섭씨 31.3도를 기록한 가운데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가 울들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날 부산지역 불쾌지수가 81, 식중독지수도 81로 양면이 울들어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불쾌지수 81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기준(DI 83)에 가까운 수준이다. 식중독지수 81은 음식물이 조리된 지 4~6시간이 지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자라기 쉬워 조리시설내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경고'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돼 이들 지수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필희기자 flute@kookje.co.kr



더위먹은 닭 있던 '떼죽음'

김해 7000마리 등 경남서 8200마리

경남 김해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며 계속되는 더위로 닭 떼가 떼죽음을 당했다. 김해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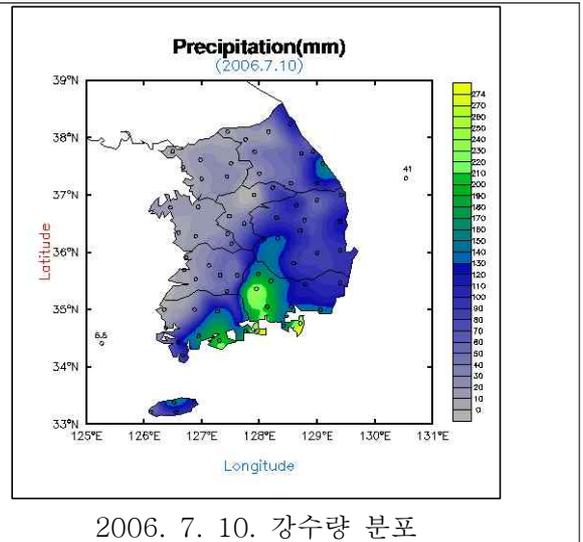


이 시점에서 물이 마르면 사람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 농민들은 닭 떼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04. 7. 29 / 7.30 국제신문기사

○ 태풍 “에위니아”(EWINIAR, 2006년 7월 10일)

2006년 7월 1일 괌 남서쪽 1,010km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북상하여 7월 10일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강풍과 호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남해안과 경남서부지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경남 남해에는 264.5mm의 호우와 최대순간풍속 32.0m/s의 강풍이 불어 7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음. 전국적으로 1조 8,344억원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7월 최대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마산	1987.07.16	25.3	1987.07.15	22.7	1995.07.23	22.3	2006.07.10	20.3	1999.07.27	16.7
진주	1987.07.15	17.7	1995.07.23	16.7	1987.07.16	15.3	1989.07.28	14.0	2006.07.10	12.5
산청	1995.07.23	11.0	2006.07.10	9.7	2004.07.05	9.6	1999.07.27	9.3	2002.07.06	8.9
거제	1987.07.15	18.0	1995.07.23	15.1	1987.07.16	14.5	1972.07.04	14.0	2006.07.10	13.5

○ 7월 최대순간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마산	1995.07.23	38.0	1987.07.16	32.8	1987.07.15	31.0	2006.07.10	30.9	1999.07.22	28.0
진주	1987.07.15	36.4	1987.07.16	29.4	1995.07.23	28.3	2006.07.10	25.1	1989.07.28	20.3
밀양	1995.07.23	22.3	1994.07.28	20.6	2007.07.29	18.7	2006.07.10	18.7	1994.07.11	18.2
산청	1995.07.23	22.0	2006.07.10	21.1	2004.07.05	20.3	2004.07.04	19.7	2002.07.06	19.0
거제	2006.07.10	27.7	1995.07.23	26.0	2009.07.19	19.8	2009.07.09	19.8	2005.07.09	19.3
남해	2006.07.10	32.0	1995.07.23	28.9	2002.07.05	23.1	2002.07.06	22.1	2004.07.04	20.5

○ 7월 일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마산	2009.07.07	268.0	1999.07.30	268.0	2009.07.16	189.5	2006.07.09	136.5	2006.07.10	134.0
진주	2006.07.10	203.0	1989.07.25	199.2	1984.07.05	194.7	1987.07.15	188.3	2009.07.07	175.5
거창	1987.07.15	184.1	2006.07.10	167.5	2002.07.05	158.0	2000.07.23	155.5	1984.07.07	148.5
합천	1987.07.15	213.5	2006.07.10	170.0	2000.07.15	139.5	1991.07.31	138.2	1984.07.07	130.1
산청	1987.07.15	287.3	2002.07.05	252.0	2006.07.10	229.5	1984.07.07	164.6	1989.07.25	163.2
거제	1999.07.29	387.5	2006.07.10	251.0	1999.07.30	248.0	2009.07.07	243.0	1989.07.28	221.0
남해	2006.07.10	264.5	1987.07.15	264.5	2009.07.07	232.0	1995.07.23	196.5	1995.07.07	170.5

○ 7월 1시간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마산	2009.07.16	102.0	1999.07.30	86.6	1999.07.22	63.0	2009.07.07	59.0	2006.07.09	47.5
진주	1988.07.14	65.0	1989.07.25	62.0	1984.07.05	54.7	2006.07.10	52.5	2009.07.16	51.5
거창	2006.07.10	54.0	1980.07.23	48.5	1990.07.15	45.5	2005.07.02	44.5	1999.07.30	41.0
산청	1984.07.05	55.5	2006.07.09	54.0	2000.07.19	53.0	1987.07.15	53.0	2002.07.05	49.0
거제	2001.07.05	96.5	2000.07.14	78.0	2003.07.18	66.5	1999.07.30	61.5	2006.07.10	58.0
남해	1991.07.30	62.0	1987.07.15	53.0	2006.07.09	51.0	1995.07.23	50.0	2002.07.21	49.0

○ 태풍 “에위니아” 재해 관련 기사

발행일 : 2006.07.11 / 종합 A1 면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서해안을 따라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0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 상륙한 뒤 빠른 속도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남해안과 영남, 충청, 강원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태풍 에위니아는 이날 오후 10시쯤 강원도 홍천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10일 밝혔다.

▶ 관련기사 A3·8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부터 이날 동안 사망 6명, 실종 2명 등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 등 3개 시도 297개 초·중·고교가 휴교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 등 지방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도 중단됐. 김포~제주 69편, 김포~김해 52편, 김포~광주 11편, 김포~울산 24편, 김포~여수 16편 등 모두 193편이 무더기로 결항해 휴가철 승객 2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제주 등 일부 노선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기는 정상 운항했다.

강릉과 높은 파도로 선박 운항도 어려워 부산항 등 남동해안 주요 항구로 선박 8000여척이 피했고 인천, 목포, 군산 등 서해안 항구에도 2만1000여척의 선박이 대피했다. 이로 인해 제주와 목포, 여수, 완도 등 도서(島嶼)를 오가는 47개 뱃길도 모두 끊겼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에서는 주택 90여동이 물에 잠겼고 경남 창녕 등에서 41가구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2240ha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정성진기자 (블로그)sjchung.chosun.com)

태풍 ‘에위니아’ 한반도 관통 컨테이너마저 날려보냈다

▶ 프린트 ▶ 기사목록 ▶ 지면보기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한반도 내륙을 강타했으나 이날 밤 사이 소멸했다. 기상청은 “에위니아가 10일 오후 10시 강원 홍천 지역을 지나면서 소멸했다”며 “내륙으로 올라온 뒤 수증기 공급이 중단돼 저기압으로 변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태풍이 소멸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쳤으나 남쪽으로 밀려났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1일 남부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태풍은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진로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려 큰 피해를 끼쳤다.》

특히 영남과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9, 10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10일 오후 10시 기준)은 경남 남해가 380mm로 가장 많았고 산청 353.5mm, 거제 295.5mm, 진주 286.5mm, 마산 270.5mm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도 여수 253.5mm, 고흥 240.5mm, 순천 167.5mm로 비 피해가 컸다.

한편 제4호 태풍 빌라스가 10일 미국령 괌 서쪽 1000km 부근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전국 비 피해 속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10시 현재 남부지방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사망 6명, 실종 2명 등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41가구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집계에는 뱃길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인명 피해는 1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경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 노상에서 자녀를 마중 나가던 박모(36여) 씨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쏟아져 내린 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날 250mm의 집중우수가 쏟아진 울산에서는 북구 무룡천과 영춘천 등 도심 하천 제방 5곳이 붕괴됐다. 또 경남에서만 주택 90채와 농경지 2240ha가 침수됐으며 창원 재배 면적이 1800ha에 이르는 경북 성주군에서는 수확을 앞둔 참외가 물에 잠겼다.

전남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가장 컸던 여수시의 경우 폭우와 만조가 겹쳐 피해가 더욱 컸었다. 이날 오전 10시 소라면에서는 모가 막 이삭을 낀 184ha가 물에 잠겼다.

강릉 피해도 컸다.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쪽 17km 해상에서 3만7000톤 플라 섹터 ‘짐쳐렌오’ 갑판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24개가 바람에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 ▽문 닫은 학교, 멈춘 비행기와 뱃길도 9일에 이어 강릉과 함께 폭우가 몰아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무더기 휴교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전남 경남 제주 3개 도의 297개 초·중·고교가 임시 휴교했다고 밝혔다.

2006. 7. 11. 조선일보기사

국제신문 2006년 7월 11일 화요일 **종합 3**



‘메미’ 이후 최대 농경지 침수
경남합천 입주 100여개 시도 - 400여 헥타르 침수
부유물경 피해 속출

국립농업과학기술원 연구진이 10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0일 동안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번 태풍 에위니아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남해안과 영남, 충청, 강원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태풍 에위니아는 이날 오후 10시쯤 강원도 홍천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동등... 비닐하우스 쓸려가
태풍 에위니아 ‘남부 강타’
지방에서 태풍 에위니아는 10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0일 동안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번 태풍 에위니아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남해안과 영남, 충청, 강원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태풍 에위니아는 이날 오후 10시쯤 강원도 홍천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10일 밝혔다.

2006. 7. 11. 국제신문기사

2006. 7. 11. 동아일보기사

태풍 ‘에위니아’로 전국에 피해 속출
연말뉴스 기사입력 2006-07-11 16:33 | 최종수정 2006-07-11 16:33



(서울=연합뉴스) 태풍 에위니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침수되고 삼파의 모금자리마저 잃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경남과 경북, 전남 등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남 창원군 전 모씨가 하천서 양수기를 제거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오늘날까지 전국에서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서 추가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위니아의 위력에 주택과 농경지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경남 467개, 경북 60개 등 전국적으로 주택 626개 등이 침수되고, 15동이 파손됐습니다. 또 경남 7천730ha, 전남 5천5ha 등 농경지 1만4천730ha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창원군과 사천군 등에서 모두 317세대, 8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오전 6시 현재 이 가운데 217세대 647명만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수습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기압저 부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태풍에 따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조현철입니다.

2006. 7. 11. 연합뉴스기사